

순천시, 울촌1산단에 한국형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유치 추진

순천-고흥 나로우주센터-사천 연결 최적 후보지 교통·교육·문화 등 조립장 직원 정주여건 완벽

순천시와 순천상공회의소(회장 이흥우)·울촌산단협의회(회장 정오음)가 울촌1산단에 한국형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유치를 나선다.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새로운 단 조립장 설립을 위한 예비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울촌1산단을 선정한 바 있어, 순천시와 상공인, 울촌산단협의회가 적극적인 유치를 나서기로 약속했다. 2월27일 울촌산단협의회에 따르면 울촌1산단 내 예정 부지는 2012년 준공 인가돼 기반 시설이 완비됐으며 즉시 부지매입과 입주가 가능한 상태다 단 조립장 설립 계획 일정 내 차질 없이 착공이 가능한 준비된 생산시설 부지라는 것이다.

기반 시설이 완비되었음에도 땅값이 1㎡당 12만 원(평당 40여만 원)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전력, 용수공급이 충분하고 인근 산단 개발에 따른 관련 기업 입주로 인프라 확장이 가능해 추후 우주항공산업 배후 클러스터 조성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나로우주센터 접근성과 연관 산업 인프라도 이번 단 조립장 설립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힌다. 울촌1산단이 위치한 순천시는 나로우주센터와 사천을 잇는 삼각편대이자, 현대제철, 포스코, 초경량 마그네슘 생산시설 등 연관 산업체와 다수의 R&D 기관이 입주해 있는 곳이다. 또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이자 교육·쇼핑·편의시설이 풍부해 직장·주거·힐링 여가가 가능한 '직주락(Work, Live, Play 樂)' 도시인 만큼, 직원들의 정주 여건까지 고려한다면 순천시가 가장 최적의 후보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광양만권 내에는 우주항공 연관 사업이 이미 집적돼 있고, 순천시는 전통적인 교육도시인 만큼 미래 첨단 인재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그리는 백년대계를 함께 열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주민과 기업, 대학과 지방정부 모두가 염원하는 숙원사업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해안벨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역 균형발전과 민간주도의 기회특구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유관 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서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망을 담아 순천시에 강력하게 유치를 건의해 각종 인허가 처리 단계 및 행정·재정적 지원, 정



주 여건 제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의뢰한 용역 조건에 부합된 현장평가 대비 등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시, 고위공직자 출신 '청렴 챌린지 캠페인' 전개

50여 명...청렴도 1등급 달성 박차

여수시가 지난 2월24일 시청 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 청렴 챌린지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정기명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소·단장 등 고위공직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반부패 실천의지 메시지 피켓을 들고 정시장의 실천 다짐 구호 선창과 참석자들의 후창으로 청렴 의지를 다졌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3등급을 받았다. 이에 올해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35개 시책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청렴실천에 고위공직



자부터 먼저 솔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청렴의지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3개 그룹으로 나눠 84개 부서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모든 공직자가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청렴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공직자가 함께 공감하는 '반부패 청렴'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고흥군,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모집 설명회 개최 최신시설 스마트팜 임대로 청년농에게 농업의 비전 제시

고흥군은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 선발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 2월24일 스마트팜 청년창업교육 2기 교육생 41명을 대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모집 설명회를 갖고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물 현황 ▲입주희망자 지원자격 ▲선발규모 ▲임대차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함과 동시에 질의응답을 통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고흥군 도덕면에 위치하고 있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유리온실 3개동(5.76ha)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A동은 토마토, B동은 딸기, C동은 멜론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갖추고 있는 최적인 영농시설이다. 군은 2월에 실시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희망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부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모집 및 선발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입주를 목표로 4개팀 12명의 청년농을 선발할 계획이다.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농은 작물 생육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 환경제어와 양액 조절, 병충해 방제 등과 관련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며, 초기 영농 진입을 위한 스마트팜 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흥=기동채본부

광양시, 친환경농업대학(청년농업반·생명농업반) 운영

초보 농업인 위한 청년농업반 신설

광양시는 3월 10일까지 '제26기 친환경농업대학' 청년농업반과 생명농업반 2개 과정에 대한 교육생 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반'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농업인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설된 과정으로 청년농업인의 기본소양, 사업계획 수립, 기초 영

농기술 과정 등을 교육한다. 교육 대상은 18세 이상~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또는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으로, 교육 인원은 15명이다. '생명농업반'은 생명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 방법, 미생물, 친환경 토양관리, 안전 농기계 실무 등을 교육한다. 교육 대상은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된 광양시 거주 시민으로, 교육 인원은 30명이다.

또한, 청년·생명농업반 공통과목으로 국가 기술자격 종자기능사 취득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기간은 3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6개월간이며, 농업인교육관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총 24회 104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광양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서천번로 177)로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광양=김현근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